

청소년의 불안정 애착과 문제행동: 공감능력의 조절역할*

박 지 언[†]

이 은 희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불안정 애착 중 어떤 유형의 애착이 문제행동(우울/불안, 비행, 공격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들과 문제행동(우울/불안, 비행,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남 창원 및 마산 시 소재 6개 학교 28개 학급 남녀 고등학교 학생 8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우울/불안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애착불안이 애착회피보다 이들의 우울/불안 수준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불안정 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공감능력이 청소년의 우울/불안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행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애착불안과 비행과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불안정 애착이 청소년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으로, 공감능력이 청소년 비행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애착불안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시킬 수 있는 보호적 기능이 공감능력에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불안정 애착, 애착불안, 애착회피, 문제행동, 공감능력

* 본 논문은 박지언의 2007년 8월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수정 보완된 것임.

† 교신저자 : 박지언,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631-701) 경남 마산시 월영동 449

E-mail : parkjieon@yahoo.co.kr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은 물론, 심리·사회적 발달로 정서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역할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문제, 또래관계 등의 여러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이처럼 정서변화가 급격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우울, 불안이나 문제행동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임영식, 한상철, 2000).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청소년과 가정, 학교, 이웃 등으로 구성된 독특한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장애가 있어 발생하는 것으로, 심리 및 사회적 원인으로 형성된 복합적인 문제로서(김수주, 2002), 사회적 기대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이다(한미현, 1996).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신체화, 강박증, 우울증 등의 내재화 문제행동(internalized problem behavior)과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잉행동, 공격성,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externalized problem behavior)으로 세분할 수 있다(Achenbach & Edelbrock, 1983),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족요인들이 매우 중요한데, 가족요인으로서 애착은 아동과 양육자간의 감정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의미 한다(Roelofs, Meesters, Huurne, Bamelis, & Muris, 2006). 특히 청소년기에는 부모에 대한 애착행동과 관심이 부모로부터 또래관계로 이동하는 시기로서(Furnam & Buhrmester, 1992; Hazan & Zeifman, 1994) 불안정 애착유형의 청소년들은 잘 적응하지 못하여 정서적 문제와 행동적 문제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oper, Shaver, & Collins, 1998).

많은 연구자들이 학대경험이 아동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는 아동의 다

른 사람들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는데(Bowlby, 1969/1982; Lamb et al., 1985; Finzi et al., 2001; Baker & Martinez, 2006에서 재인용), 미네소타 부모 아동 프로젝트에서도 유아기에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또래관계가 나쁘고 공격성과 우울증상을 더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Egeland & Stroufe, 1981; Elgar, Knight, Worrall, & Sherman, 2003에서 재인용).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품행 장애, 주의력 장애, 성적 관계 문제, 우울증, 약물 남용, 자살 등과 같은 행동 장애나 정신 병리에 취약하고, 안정적 애착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정신 병리에 완충 작용을 한다(Crittenden, 1995). 그래서 생애초기에 형성하게 되는 애착은 이후에 맺게 되는 모든 사회관계에서의 성공적인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애착 연구에서 Ainsworth, Blehar, Waters 및 Wall(1978)은 대부분의 유아들이 3가지 유형의 애착유형으로 발달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안정 애착유형(secure attachment style)을 발달시키지만, 일부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떨어졌을 때 매우 불안해하는 불안-양가적 애착유형(anxious ambivalent attachment style)과 절대 자기 부모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회피 애착유형(avoidant attachment style)을 발달시킨다.

Bowlby(1973)는 안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아동들은 세상을 안락함이 없고 예측가능하지 않다는 시각을 갖게 되어, 세상으로부터 위축되거나 세상과 전투를 하는 식으로 반응한다고 보고 불신이나 만성적인 불안을 포함하는 행동적 문제들에서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불안정 애착유형의 아동들은 안정 애착유형의 아동들에 비해서

양육자에 대해서 더 많은 불신과 분노를 느낄 가능성이 높고 양육자의 가치를 내재화하는데 실패하고,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술들을 발전시킬 기회가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Cummings & Davis, 1996; DeKlyen & Speltz, 2001).

불안-양가적 애착유형의 아동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전형적으로 과장된 감정반응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애착체계의 과일활성화를 보여서(Kobak, Cole, Ferenz-Gillies, Fleming, & Gamble, 1993), 쉽게 과흥분 되고 반응적이고, 충동적이고, 불안하며 쉽게 좌절되어서(Stroufe, Fox, & Pancake, 1983) 많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인다(Mannasis, Bradley, Goldberg, Hood, & Swinson, 1995; Warren, Huston, England, & Stoufe, 1997). 반면에 회피 애착유형의 아동들은 타인으로부터 도움 받는 것을 꺼려하며 자신의 사회적 연결망에 덜 의존하며(Larose & Bernier, 2001), 타인을 의지할 수 없거나 거부적인 것으로서 보아서 타인과의 신뢰로운 관계의 발전에 실패하며, 다른 사람들이 정서적 친근감과 위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보아서 사회적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갖게 된다(Kennedy & Kenneedy, 2004). 회피 애착유형의 아동들은 안정 애착유형의 아동들 보다 외현화 문제행동(Rosenstein & Horowitz, 1996)과 공격적, 반사회적 행동(Renken, England, Marviney, Mangelsdorf, & Sroufe, 1989; Sroufe et al, 1983)을 더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유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유형이 성인기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Shaver & Hazan, 1993). 또한 생애 초기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 조부모 및 다른 친인척에 대대한 애착으로 확장되고 그것은 다시 또래, 친구 및 배우자에까지 확장되므로(Waters, Weinfeld, & Hamilton, 2000) 결

국 애착은 유아기 뿐 아니라 아동기 및 더 나아가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삶에 중요한 발달 과제로 여겨진다.

아동과 성인의 애착유형은 자신과 친밀한 타인들의 기본적 작동모델을 반영하는 두 차원에 근거하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는데, 애착불안(attachment anxiety) 차원은 본인의 가치평가에 근거한 타인들과의 친밀성을 추구하는데 있어서의 개인적 편안함 수준을 반영하며, 애착회피(attachment avoidance) 차원은 타인들이 그 개인에게 지지와 편안함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한 믿음들을 의미한다(Cann, Norman, Welbourne, & Calhoun, 2008). 즉 애착불안 차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지각정도로서 자기표상 차원과 관련되며, 애착회피차원은 타인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지각정도로서 타인표상과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두 차원에 근거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낮은 애착불안)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지각(낮은 애착회피)이 특징인 안정형,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낮은 애착불안)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지각(높은 애착회피)이 특징인 거부형(dismissive), 자신에 대한 부정적 지각(높은 애착불안)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지각(높은 애착회피)이 특징인 공포형(fearful), 자신에 대한 부정적 지각(높은 애착불안)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지각(낮은 애착회피)이 특징인 몰입형(preoccupied)의 네 범주 모델을 만들었다. 이들 애착 모델들은 생애 초기에 발달되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Simpson, Collins, Tran, & Haydon, 2007). 그런데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자기 및 타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표상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두 차원은 Hazen과 Shaver(1987)의 성인애착 분류에

기저 하는 불안 및 회피차원과 같은 것으로서 (Bremner, Clark, & Shaver, 1998; Shaver & Hazan, 1993) 애착의 작동모델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eg., Brennan & Shaver, 1995; Brennan et al., 1991; Fraley et al., 2000; Simpson et al., 1992; Hunter, Davis, & Tunstall, 2006에서 재인용). 따라서 애착개념이 불안과 회피라는 공통적인 2개의 독립적인 차원에 의해서 더 정확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안-양가적 애착유형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 적대감을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행동화를 통하여 방출할 가능성이 높다(Dryfoos, 1990). 반면에 회피유형의 청소년들은 사회적 기술이 빈약하고(Collins & Read, 1990), 사회적 관계를 잘 맺지 못하기 때문에(Feeney & Noller, 1990) 대인관계에 서툴러서 비행친구에 휩쓸리기는 쉽지 않지만 한번 시작하면 더 많은 문제행동을 유발한다(Cooper et al., 1998).

많은 연구들에서 안정적 애착유형이 불안정 애착유형보다 더 나은 정신건강과 관련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만 불안정 애착유형인 불안-양가적 애착유형과 회피 애착유형과 연관되는 정신장애와의 관련성은 일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ifulco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유형의 기본 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청소년의 문제행동(내재화, 외현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최근의 성인애착 연구자들은 아동기에 형성되는 부모와의 애착이 이후 타인 및 자신에 대한 신념으로 재조직화된 기대인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이어지며, 이 내

적 작동 모델은 공감적 성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Bretherton, 1992). 그리고 불안정 애착유형의 청소년들이 문제행동과 관련되어 적대심과 사회적 유능성과 같은 정서조절에 실패하여(Cooper et al., 1998) 상대방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여 받아들이기 때문에 적대감이 쌓여서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사적인 지각세계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느끼고 생각하고 (Rogers, 1975), 다른 사람의 정서와 꼭 동일한 것은 아니더라도 부합하는 정서에 대한 대리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서(Barnett, 1987), 인간행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Hogan, 1969).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포함한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이 공감으로 표출되어(Hollin, 1994) 친사회적 행동(예, Baston, Fultz, & Schoenrade, 1987; Eisenberg & Strayer, 1987)을 촉발한다. 반면에 공감능력의 결여는 다른 사람의 정서에 둔감하게 만들어 반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성격장애(예, Blair et al., 1996; Feshbach, 1987)를 발현시킨다.

공감은 크게 타자의 역할을 취해보고 대안적인 조망을 취해볼 수 있는 능력인 인지적 공감과 타인의 정서를 대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인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Smith, 2006).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공감을 통해서 공감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고(Merbian & Epstein, 1972), 정서적 공감이 폭력억제의 핵심기제(Smith, 2006)라는 시각에서 정서적 공감에 초점을 두었다.

애착유형에 따라서 다른 정서조절전략이 발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정애착 영아는 정서를 개방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부모

와 정서를 공유하는 개방적 정서표현 전략을, 회피애착 영아는 정서적 위안의 근원으로써 부모의 중요성을 최소화하고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전략을, 불안애착 영아는 최대한으로 어머니의 주의를 끌기 위해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머니에게 극도의 의존성을 보이고 정서표현을 과장하는 전략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주, 이순행, 최해훈, 방희정, 2005). 또한 상담자의 경우에 불안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고 회피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이수현, 김동민, 서영석, 2006). 결국 이러한 결과들은 불안정 애착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애착유형에 따라서 정서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이 자녀의 정신병리와 연관되며(Crowell, O'Connor, Wollmers, Sprafkin, & Rao, 1991), 어머니의 높은 온정 수준과 민감성 수준이 자녀의 적은 문제행동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나서(Deater-Deckard, 2000; Stams, Juffer, & Van IJzendoorn, 2002),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완화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불안정 애착 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에게 자녀에 대한 민감성을 촉진하는 단기간의 비디오 피드백 부모교육 훈련을 시킨 결과 훈련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서 임상적인 외현화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Velderman et al., 2006), 정서적 공감능력이 불안정 애착과 문제행동 간에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수용 받고 공감하는 긍정적인 인간관계 경험 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박혜원, 2002). 청소년의 공감능력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부적응과 교내집단 따돌림에 대한 동조현상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데(김지현, 2002), 비행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공감능력이 부족하고(Miller & Eisenberg, 1988), 공감적 양육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김영란, 2005).

지금까지 언급된 공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공감능력이 청소년 문제행동 유발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요인들의 효과를 완충하는 조절변인의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부모의 부정적인 영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공감능력이 실제로 완충시키는 조절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드물어서 이에 대한 검증이 요청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유형의 청소년들이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것이 적대심과 사회적 유능성과 같은 정서조절의 실패에 기인한다는 Cooper 등(1998)의 연구에 근거하여 불안정 애착 유형의 청소년들은 상대방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여 받아들이기 때문에 적대감이 쌓여서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불안정 애착유형의 청소년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불안정 애착이 문제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공감능력이 완화시키는지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 검증해보고자 한다. 만약 청소년의 불안정애착과 문제 행동 간에 공감이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행동 개입 프로그램 및 상담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방 법

조사대상자 및 조사절차

본 연구는 경상남도내의 도시권지역인 창원 및 마산시 소재 6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 2학년 28개 학급 남녀 고등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표집에 선정된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으며, 수업시간에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877명의 자료가 수거되었으며, 사전분석결과 다변량 극단치로 여겨지는 35명을 제외한 842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최종분석 대상자 중 남학생은 426명, 여학생은 416명이었다.

측정 도구

애착 척도

청소년들의 애착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등(1998)이 개발한 불안과 회피 하위척도로 구성된 ECRS(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 Scale)를 황경옥(2001)이 번안한 36문항을 사용하였다. 불안하위척도(18문항)는 거절과 포기, 몰입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며, 구체적인 문항의 예로는 “나는 상대방에게 위로, 조언, 또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 한다.”, “나는 가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애정과 더 많은 헌신을 보여

달라고 강요 한다.” 등이다. 회피하위척도(18문항)는 의존성 또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친밀성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며, 구체적인 문항의 예는 “나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매우 편안하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 등이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ECRS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불안차원 .91, 회피차원 .94로 보고 되었으며(Brennan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나타난 내적일치도는 불안 .88, 회피 .85로 나타났다.

공감 척도

Mehrabian과 Epstein(1972)의 자기보고식 정서적 공감(Emotional Empathy) 척도를 첫 번째 저자가 우리말로 번역하였으며, 심리학 박사인 두 번째 저자와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고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영어교육학 박사 1인이 원래의 문항들과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Mehrabian과 Epstein(1972)의 척도는 정서적 감염에 대한 감수성, 잘 모르는 먼 타인들의 감정에 대한 이해, 극단적인 정서적 반응성, 타인들의 긍정적인 정서경험에 의해 움직여지는 경향, 타인들의 부정적인 정서경험에 의해 움직여지는 경향, 동정적 경향, 문제를 가진 타인과 기꺼이 접촉하는 경향이라는 7개의 관련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인 문항의 예는 “사랑노래의 가사가 정말 나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다.”, “나는 집단 내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애처롭다.”, “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서 우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한

다.", "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초조하고 불안하면 나도 그렇다.", "난 친구의 문제에 감정적으로 깊이 개입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종종 공공장소에서 적나라한 애정행각을 보면 혐오감이 생긴다.", "나는 단지 친구가 나를 화나게 한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 등이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정서적 공감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Mehrabian과 Epstein의 정서적 공감척도 33개 문항 중 신뢰도가 떨어지는 3문항(3, 4, 13번)을 제외하고 29문항만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나타난 내적일치도는 .76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 척도

문제행동 척도는 Achenbach(1991)가 개발한 것을 오경자, 하은혜, 홍강의 및 이혜련(2001)이 표준화한 K-YSR(Korea-Youth-Self Report)을 장덕희(2001)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2문항,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심함을 나타낸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내용은 불안/우울, 사회적 위축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은 비행, 공격성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32개의 문항 중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우울/불안의 9문항을,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비행 9문항과 공격성 9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의 예는 "나는 때때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우울해 하는 편이다.", "나는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봐 두렵다.", "나는 밖에서 도둑질을 한 경험이 있다.", "나는 싸움을 자주 하는 편이다." 등이다. 장덕희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는 우울/불안이 .83, 비행이 .71, 공격

성이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일치도는 우울/불안이 .78, 비행이 .74, 공격성이 .69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청소년들의 불안정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공감능력이 문제행동(우울/불안, 비행,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성차와 학년에 기인한 변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먼저 이들 통제변인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문제행동(우울/불안, 비행, 공격성)을 예측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예언변인으로 하여 문제행동(우울/불안, 비행, 공격성)을 예측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3단계에서 공감능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회귀계수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청소년의 불안정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문제행동(우울/불안, 비행,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절적 중다회귀분석(Multipl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Aiken & West, 1991).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때는 Cohen(1988)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조절효과의 유의미성 정도인 f^2 값이 Cohen의 임계치인 .02보다 큰 경우에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예, Aguinis & Stone-Romero, 1997; Li & Harmer, 1998) 두변인간의 비직선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즉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조절효과가 나타난 경우에도 측정오차에 의한

$$1) f^2 = (R^2_{y1, x1 x^2} - R^2_{y1, x1 x}) / (1 - R^2_{y1, x1 x^2})$$

곡선적 효과에 의하여 의사조절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Lubinski & Humphreys, 1990; MacCallum & Mar, 1995) 조절변인과 곡선적 변인 모델 중에서 조절변인에 의한 증분설명량이 많은 경우에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결 과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

불안정 애착, 공감, 문제행동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애착불안은 공감능력, 우울/불안, 비행 및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 = .26, p < .001, r = .64, p < .001, r = .25, p < .001$). 따라서 청소년의 애착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고 문제행동(우울/불안, 비행, 공격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착회피는 우울/불안 수준과 정적인 상관이($r = .17, p < .001$), 공감능력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6, p < .001$). 따라서 청소년의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낮고 우울/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감능력은 우울/불안과는 정적인 상관이($r = .28, p < .001$), 비행 및 공격성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 = -.21, p < .001, r = -.09, p < .05$). 따라서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우울/불안 수준이 높아지고 비행 및 공격성 수준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안정 애착과 공감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애착불안, 애착회피 및 공감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울/불안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학년과 성별(통제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애착불안 및 애

표 1.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 및 평균

변 인	1	2	3	4	5	6
1. 애착불안	—					
2. 애착회피	.15***	—				
3. 공감능력	.26***	.36***	—			
4. 우울/불안	.64***	.17***	.28**	—		
5. 비행	.10**	.05	-.21***	.28***	—	
6. 공격성	.25***	-.05	-.09*	.25.43	.38***	—
평균(M)	46.26	-46.29	106.85	5.91	17.40	23.53
표준편차(SD)	10.70	9.45	10.89		5.10	5.22

주. N=803. * $p < .05$. ** $p < .01$. *** $p < .001$

착회피를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공감능력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되었듯이, 청소년들의 우울/불안 수준은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변인들에 의해서 41.4%가 설명되고, 공감 변인에 의해서 2.5% 설명된다.

따라서 애착회피보다 애착불안이 청소년들의 우울/불안 수준에 영향을 더 미치며,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공감변인이 우울/불안 수준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 애착회피 및 공감능력이 비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행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학년과 성별(통제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애착부안 및 애착회피를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공감능력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제시되었듯이, 청소년들의 비행 수준은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변인들에 의해서 3.4%가 설명되고, 공감 변인에 의해서 4.2% 설명된다.

애착불안은 청소년들의 비행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애착

표 2. 우울/불안에 대한 연구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변인	B	β
1	학년	.16	.01
	성별	1.10	.09*
	R^2	.010	
	ΔR^2	.010	
2	학년	-.44	-.04
	성별	.55	.05
	애착불안	.35	.63***
	애착회피	.05	.07**
	R^2	.415	
ΔR^2	.414***		
3	학년	-.46	-.04
	성별	.05	.00
	애착불안	.32	.57***
	애착회피	.09	.15***
	공감	.10	.19***
R^2	.440		
ΔR^2	.025***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비행에 대한 연구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변인	B	β
1	학년	-.10	-.01
	성별	-3.76	-.37***
	R^2	.140	
ΔR^2	.140		
2	학년	-.12	-.01
	성별	-4.05	-.40***
	애착불안	.08	.17***
	애착회피	-.06	-.10**
R^2	.174		
ΔR^2	.034***		
3	학년	-.09	-.01
	성별	-3.49	-.34***
	애착불안	.12	.24***
	애착회피	-.11	-.20***
공감	-.11	-.24***	
R^2	.216		
ΔR^2	.042***		

* $p < .05$. ** $p < .01$. *** $p < .001$

회피는 비행수준과는 유의한 상관($r = -.05, ns$)이 없었지만, 비행수준에 유의한 부적인 회계계수를 보여서 억제변인(suppressor variable)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애착불안만이 비행수준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Howell, 2002). 따라서 청소년의 애착불안이 비행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공감변인이 비행수준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 애착회피 및 공감능력이 공격성

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격성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학년과 성별(통제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를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공감능력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제시되었듯이, 청소년들의 공격성 수준은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변인들에 의해서 7.3%가 설명된다. 애착회피는 공격성 수준과는 유의한 상관($r = -.05, ns$)이 없었지만, 공격성 수준에 유의한 부적인 회계계수를 보여서 억제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애착불안만이 공격성 수준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Howell, 2002). 따라서 청소년의 애착불안이 공격성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착불안은 청소년들의 공격성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는 공감변인이 공격성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 애착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우울/불안 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비행 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애착불안과 비행 간의 관계에서만 공감능력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애착불안과 비행

표 4. 공격성에 대한 연구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변인	B	β
1	학년	.49	.05
	성별	-.13	-.01
	R^2		.000
	ΔR^2		.000
	학년	.40	.04
2	성별	-.51	-.05
	애착불안	.13	.27***
	애착회피	-.06	-.09**
	R^2		.073
	ΔR^2		.073***
3	학년	.40	.04
	성별	-.48	-.05
	애착불안	.13	.27***
	애착회피	-.06	-.10**
	공감	-.01	-.02
	R^2		.073
ΔR^2		.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애착불안과 비행 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조절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인	B	β
학년	-.10	-.01
성	-3.76	-.37***
R^2		.140
ΔR^2		.140
학년	-.25	-.02
성별	-3.46	-.34***
애착불안	.09	.19***
공감능력	-.07	-.15***
R^2		.184
ΔR^2		.044***
학년	-.28	-.03
성별	-3.39	-.33
애착불안(A)	.09	-.20***
공감능력(B)	-.08	-.16***
조절효과(A×B)	-.01	-.13***
R^2		.201
ΔR^2		.017

* $p < .05$. ** $p < .01$. *** $p < .001$

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완충효과가 확인되었다, $\Delta R^2 = .017$, $\Delta F = 16.65$, $p < .001$. 그리고 Cohen(1988)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조절효과와의 유의미성 정도인 f^2 는 .021로서 Cohen의 임계치(.02)보다 커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애착불안과 공감능력 변인들이 비행과의 관계에서 곡선적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변인과 곡선적 변인 모델의 증분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애착불안)²의 변인에 의한 증분량($\Delta R^2 = .002$, $\Delta F < 1$, $p > .05$)과 (공감능력)²의 변인에 의한 증분량($\Delta R^2 = .001$, $\Delta F < 1$, $p > .05$)보다 조절변인에 의한 증분효과가 더 커서 의사조절효과가 아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즉, 공감능력이 애착불안으로 인한 비행의 증가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centering된 애착불안과 공감능력 각각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중다회귀방정식에 대입하여 2개의 회귀식을 유도한(Howell, 2002) 결과, 그림 2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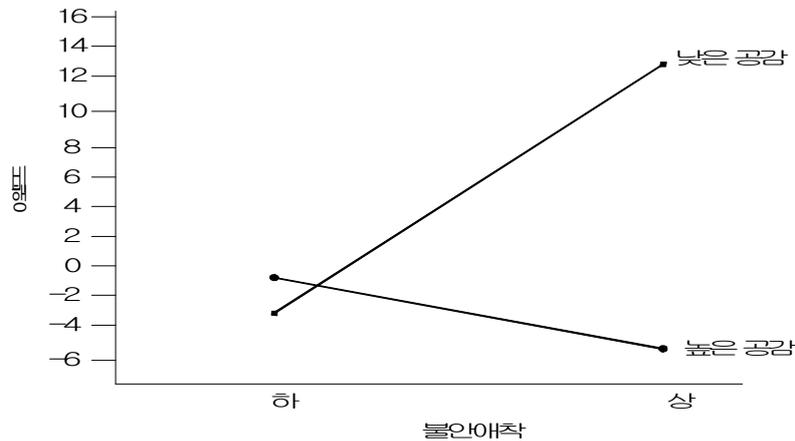


그림 2. 애착불안과 공감의 상호작용 효과

제시된 바와 같이 공감능력이 낮은 청소년 집단은 애착불안이 높아질수록 비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공감능력이 높은 청소년 집단은 애착불안이 높아질 때 비행이 증가하지 않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감능력이 애착불안으로 인한 비행의 증가를 완충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남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불안정 애착과 공감능력 및 문제 행동 간의 관계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은 공감수준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애착회피는 공감능력과 부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의 애착유형과 상담경험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에 나타난 이수현 등(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Trusty, Ng 및 Watt(2005)는 143명의 상담수련생 대상으로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정서적 공감의 수준을 검토한 결과, 불안이 높을수록 그리고 회피가 낮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발견했다. 이것은 애착관계형성에 있어서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사람들로서 의존욕구가 강하고 중요한 타인의 인정을 중요시 여기기에 공감수준이 높고, 회피적인 사람들은 관계형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부

정적인 평가를 하기에 공감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장휘숙, 1997; Bartholomew & Horowitz, 1991). 말하자면, 어릴 때 부모와 불안애착이 형성이 되어 내적 상처를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상처를 부인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통합된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상처에 대한 자기인식이 친구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Miller & Baldwin, 1987). 그리고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일반청소년과 비교하여 학대받은 청소년의 공감점수가 낮은 것을 발견한 연구결과들(최윤라, 1988; Straker & Jacobson, 1981)과 정서적 반응이 부족한 부모의 자녀는 공감발달이 저조하고(박성희, 1994), 성인이 되어 남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Saul, 1996/1979).

초기의 부모와 자녀와의 애착관계는 앞으로의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결정한다(Kestenbaum, Farber, & Stroufe, 1989). 그래서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애정을 받고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대인관계에서 타인에게 수용적, 공감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이와 반대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은 정서적으로 필요할 때 부모의 거부를 경험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공감적 모형이 없어 타인의 고통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한다. 그들은 유아기에 지속적인 감정적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거나 추구하지도 않으며(박성희, 1994), 감정회피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도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된다. 또한 자신의 고통에만 몰두하므로 타인에게 공감적

으로 반응한데 어려움이 있다.

결국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여 불안정 애착이 형성이 되면 성인이 되어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자녀를 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 자신의 초기의 애착관계에서 경험했던 미해결의 고통, 분노, 실망을 반복하게 되는 부정적인 전이 대상이 되어(이경숙, 1997)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세대 간에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불안정 애착의 부모에게 양육된 청소년들은 부모의 거부와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 양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모의 비판과 거부는 자녀에게 가치가 없고 사랑 받기에 부족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위축시키거나 감정과 방어를 유발하고, 변화를 어렵게 만든다(김인자, 1997).

둘째, 청소년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우울/불안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애착불안이 애착회피보다 이들의 우울/불안 수준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애착불안은 공격성과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잠재된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아동기 양육경험 및 문제행동의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 집단이 다른 애착유형에 비해 우울/불안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경숙, 엄혜련 및 정영운(2004)의 연구결과, 애착이 불안정적일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가지는데, 그 중에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못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주로 내재화 문제행동을 가지는 경향이 있고, 거부당하는데 대한 불안이 높은 사람은 내재화 혹은 외현화 문제행동 어느 것이나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소희, 노경선, 손석한, 옥정 및 김광일(2002)의 연구결

과들과 일치한다.

이 연구결과는 어릴 때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으면 청소년들의 공격적 행동, 비행,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미성숙 행동 등의 내재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본 연구결과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을 상담할 때에는 문제행동 수준뿐만이 아니고 문제행동의 발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지는 청소년의 불안정 애착까지도 고려하는 상담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의 영향을 통제 한 후에도 공감능력이 청소년의 우울/불안 수준에는 정적인 영향을, 비행 및 공격성 수준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특징하는 자기몰입 유형은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정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이들의 높은 공감적 성향은 객관성 상실 또는 정서적 혼미를 의미할 수 있다는 Pistole(1999)의 연구, 그리고 공감능력의 결핍이 비행청소년들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Eisenberg와 Miller(1988)의 연구 및 공감능력의 부족은 비행의 원인이 되고, 친구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김지현(2002)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Clark(1980)는 공감부족, 즉 타인의 욕구, 불안, 약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회적 긴장, 갈등, 폭력, 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은 공감능력의 증진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최근

심해지고 있는 청소년 폭력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장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서교육이 중점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정서교육의 핵심인 공감훈련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대리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또는 타인의 삶을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비행행동이 감소되거나 억제될 수 있을 것(Feshbach & Feshbach, 1982)으로 여겨진다.

넷째, 애착불안과 비행과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애착불안이 비행수준을 높이는데 공감능력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자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적, 정서적 공감훈련을 실시한 결과 정서적 공감훈련에서 자아발달의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Pecukonis(1990)의 연구, 공감능력이 도덕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 공격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의 억제 내지 감소, 공격성과 불안의 감소에 효과적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Eisenberg & Miller, 1988; Eisenberg & Strayer, 1987)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거부당하는데 대한 불안이 높은 사람은 내재화 혹은 외현화 문제행동 어느 것이나 가질 수 있는 데(이소희 등, 2002), 이러한 청소년의 경우에 정서능력 배양 훈련이 애착불안이 비행수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의 상담적 개입 시에 우선 그 비행의 위험요인으로서 내담자의 애착불안 정도를 파악하고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청소년 내담자의 정서능력을 배양하는 다양한 공감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불안정 애착이

청소년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으로, 공감능력이 청소년 비행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애착불안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시킬 수 있는 보호적 기능이 공감능력에 있음을 밝혔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지역 및 고등학교의 학생만을 임의로 선정하여 얻어진 결과이므로,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연령층 및 여러 지역의 충분한 사례, 대규모 표집의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 보고식 질문지 사용이 갖는 제약이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 공감능력,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에 해당됨에 따라, 애착이나 자신의 내면적 특성을 드러내지 않고 피험자가 방어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애착에 따른 공감능력, 문제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이 청소년의 외현화 행동(비행과 공격성)을 설명하는 변량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불안정 애착이 부정적인 자존감(백혜정, 황혜정, 2006)이나 갈등해결방식(Cann et al., 2008)과 같은 매개변인들을 통하여 청소년과 외현화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까지를 포함한 연구들 통하여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까지도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인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공감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그런데 공감이론가들과 연구자들은 공감에 대한 이해는 공감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요소 양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을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Davis, 1980; Hoffman, 1975, 1977, 1983; Feshbach, 1973, 1978; 이상민, 1999에서 재인용), 향후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능력 및 인지적 측면까지를 측정하는 공감척도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수주 (2002). 중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란 (2005). 교정상담에서의 공감의 중요성. 교정연구, 29, 159-175.
- 김인자 (1997).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 8가지. 서울: 사람과 사람.
- 김지현 (2002).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및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친구간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희 (1994).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 박혜원 (2002). 공감훈련이 여중생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주, 이순행, 최해훈, 방희정 (2005). 낮선상황에서 영아들의 애착과 정서조절간의 관련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23-38.
- 백혜정, 황혜정 (2006).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1-27.
- 오경자, 하은혜, 홍강의, 이혜련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이경숙 (1997). 애착이론과 측정. 정신건강연구, 16, 93-103.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 이경숙, 엄혜련, 정영운 (2004). 잠재된 비행청소년의 애착유형(AAI)에 따른 아동기 양육경험과 문제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511-532.
- 이상민 (1999). 부모의 공감에 대한 자녀의 지각차.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1), 131-151.
- 이소희, 노경신, 손석한, 옥 정, 김광일 (2002). 청소년의 애착 상태와 문제행동과의 관계. 신경정신의학, 41(2), 274-282.
- 이수현, 김동민, 서영석 (2006). 상담자의 애착유형과 상담경험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03-317.
- 임영식, 한상철 (2000). 청소년 심리의 이해. 서울: 학문사
- 장덕희 (2001). 가정폭력 경험 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휘숙 (1997).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23-138.
- 최윤라 (1988). 학대받은 아동의 공격성과 감정이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경옥 (2001).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1991). *Integrative guide for the 1991 CBCL/4-18, YSR and TRF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Ed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guinis, H., & Stone-Romero, E. F. (1997). Methodological artifacts in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d their effects on statistical powe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 192-206.
- Aiken, L. S., and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aker, J. C., & Martinez, C. D. (2006). Child maltreatment and insecure attachment: A meta-analysis.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4, 187-197.
- Barnett, M. A. (1987). Empathy and Related Response in Child,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146-16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aston, C. D., Fultz, J., & Schoenrade, P. A. (1987). Adults' emotional reactions to the distress of others.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163-18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fulco, A., Kwon, J., Jacobs, C., Moran, P. M., Bunn, A., & Beer, N. (2006). Adult attachment style as mediator between childhood neglect/abuse and adult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1, 796-805.
- Blair, J., Sellars, C., Strickland, I., Clark, F., Williams, A., Smith, M. et al. (1996). Theory of mind in the psychopath.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7, 15-25.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II: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1992).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Developmental Psychology*, 28, 759-775.
- Cann, A., Norman, M. A., Welbourne, J. L., & Calhoun, L. G. (2008). Attachment styles, conflict styles and humor styles: Interrelationships and associations with relationship satisfac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2, 131-146.
- Clark, K. B. (1980). Empathy: A neglected topic in psychological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 35, 187-190.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ooper, M. L., Shaver, P. R., & Collins, N. L. (1998). Attachment style,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 474-483.
- Crittenden, P. M. (1995).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In S. Goldberg, R. Muir, & J. Kerr (Eds.), *Attachment theory: Social,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 (pp.367-406). Hillsdale, NJ: Analytic Press.
- Crowell, J. A., O'Connor, E., Wollmers, G., Sprafkin, J., & Rao, U. (1991). Mothers' conceptualization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Relation to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431-444.
- Cummings, M. E., & Davis, P. (1996). Emotional security as a regulatory process in normal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8, 123-139.
- Deater-Deckard, K. (2000). Parenting and behavioral adjustment in early childhood: A quantitative genetic approach to studying family process. *Child Development*, 71, 468-484.
- DeKlyen, M., & Speltz, M. L. (2001). Attachment and conduct disorder. In Hill J, Maughan B (Eds.), *Conduct disord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ryfoos, J. G. (1990). *Adolescents at risk: Prevalence and preven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 Miller, P. A. (1988).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ive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 91-119.
- Eisenberg, N., & Strayer, J. (1987). Critical issues in the study of empathy. In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3-1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gar, F. J., Knight, J., Worrall, G. J., & Sherman, G. (2003). Attachment characteristics and behavioral problems in rural and urban juvenile delinquen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4, 35-48.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Feshbach, N. D. (1987). Parental empathy and child adjustment/maladjustment.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271-29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eschbach, N. D., & Freschbach, S. (1982). Empathy training and the regulation of aggression: Potentialities and limitations. *Academic Psychology Bulletin*, 4, 399-413.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azan C., & Zeifman, D. (1994). Sex and the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pp.151-178).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Hogan, R. (1969). Development of an empathy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307-316
- Hollin, C. (1994). Forensic (criminological) psychology. In A. Colman (Ed.), *Companion encyclopedia of psychology* (pp.1231-1253). London: Routledge.
- Howell, D. C. (2002). *Statistical methods for psychology* (5th ed). Pacific Grove, CA: Duxbury.
- Hunter, M. J., Davis, P. J., & Tunstall, J. R. (2006). The influence of attachment and emotional support in end-stage cancer. *Psycho-Oncology*, 15, 431-444.
- Kennedy, J. H., & Kennedy, C. E. (2004). Attachment theory: Implications for school psychology. *Psychology in the School*, 41, 247-259.
- Kestenbaum, R., Farber, E. A, & Sroufe, L. A. (1989).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Among Preschoolers, In N. Eisenberg (Ed), *Empathy and Related Emotional Responses* (pp.51-64). San Francisco: Jossey-Bass.
- Kobak, R. R., Cole, H. E., Ferenz-Gillies, R., Fleming, W. S., & Gamble, W. (1993). Attach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during mother-teen problem-solving: A control theory analysis. *Child Development*, 64, 231-245.
- Larose, S., & Bernier, A. (2001). Social support process: Mediators of attachment state of mind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3, 96-120.
- Li, F., & Harmer, P. (1998). Modeling interaction effects: A two-stage least square example. In R. E. Schumacker & G. A. Marcoulides (Eds) *Interaction and nonlinear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p.153-166).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ubinski, D., & Humphreys, L. G. (1990). Assessing spurious "moderator effects": Illustrated substantively with the hypothesized "synergistic" relation between spatial and mathematical ability. *Psychological Bulletin*, 107, 385-393.
- MacCallum, R. C., & Mar, C. M. (1995). Distinguishing between moderator and quadratic effects in multiple regression. *Psychological Bulletin*, 118, 405-421.
- Mannasis, K., Bradley, S., Goldberg, S, Hood, J., & Swinson, R. P. (1995). Behavioral inhibition, attachment and anxiety in children of mothers with anxiety disorder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0, 87-92.
- Mehrabian, A., & Epstein, 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 Miller. G. D., Baldwin. D. C., Jr. (1987). Implications of the wounded-healer paradigm for the use of the self in therapy. *Journal*

- of *Psychotherapy & the Family*, 3, 139-151.
- Miller, P. A., & Eisenberg, N. (1988). The relation of empathy to aggressive and externalizing/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3, 324-344.
- Pecukonis, E. (1990). A cognitive/affective empathy training program as a function of ego development in aggressive adolescent females. *Adolescence*, 25, 59-76.
- Pistole, M. C. (1999). Caregiving in attachments relationships: A perspective for counselor.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7, 437-446.
- Renken, B., England, B., Marviney, D., Mangelsdorf, S., & Sroufe, L. A. (1989). Early childhood antecedents of aggression and passive-withdrawal in early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Personality*, 57, 257-281.
- Roelofs, J., Meesters, C., Huurne, M. T., Bamelis, L., & Muris, P. (2006). On the links between attachment style, parental rearing behaviors,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non-clinical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5, 331-344.
- Rogers, C. R. (1975). Empathy: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Counseling Psychologist*, 5, 2-10.
- Rosenstein, B., & Horowitz, H. A. (1996). Adolescent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244-253.
- Saul, L. J. (1996). 행복한 결혼 멋있는 이혼: 결혼의 심리적 이해 [*The childhood emotional pattern in marriage*]. (정방자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79년에 출판).
- Shaver, P. R., & Hazen, C. (1993).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y and evidence. In D. Pertiman & W. Jones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Vol. 4, pp.29-70). London: Jessica Kingsley.
- Simpson, J. A., Collins, W. A., Tran, S., & Haydon, K. C. (2007). Attachment and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emotions in romantic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355-367.
- Smith, A. (2006). Cognitive empathy and emotional empathy in human behavior and evolution. *The Psychological Record*, 56, 3-21.
- Stams, G. J. J. M., Juffer, F., & Van IJzendoorn, M. H. (2002). Maternal sensitivity, infant attachment and temperament predict adjustment in middle adulthood: The case of adopted children and their biologically unrelate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38, 806-821.
- Straker, G., & Jacobson, R. S. (1981). Aggression, emotional maladjustment, and empathy in the abused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26-765.
- Stroufe, L. A. Fox, N. E., & Pancake, V. R. (1983). Attachment and dependency in developing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4, 1615-1627.
- Trusty, J., Ng, K. M., & Watt, R. E. (2005). Model of effect of adult attachment on emotional empathy of Counseling stud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3, 66-77.
- Velderman, M. K., Bakermans-Kranenburg, M. J., Juffer, F., Van IJzendoorn, M. H.,

- Mangelsdorf, S. C., & Zevalkink, J. (2006). Preventing preschool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hrough video-feedback intervention in infanc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7*, 466-493.
- Warren, S. L., Huston, L., England, B., & Stoufe, L. A. (1997).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 637-644.
- Waters, E., Weinfield, N. S., & Hamilton, C. E. (2000). The stability of attachment security from infancy to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General discussion. *Child Development, 71*, 703-706.
- 원고접수일 : 2008. 1. 21
수정원고접수일 : 2008. 3. 26
게재결정일 : 2008. 5. 9

Adolescents' Insecure Attachments and Problem Behaviors: The Moderating Role of Empathic Ability

Ji-Eon Park

Eun-Hee Lee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insecure attachments, empathic ability and problem behaviors. It also explored the moderating effect of empathic ability on problem behaviors.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846 high school students from six high schools in Masan and Changwon. Attachment anxiety had an influence on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s to a greater degree than attachment avoidance. Even when controlling the influence on insecure attachment, empathic ability had a number of negative influences on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s. However, it had a number of positive influences on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Empathic abilit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juvenile delinquency in a positive manner. In conclusion, this study may have a significant impact in that it to a great extent proves that empathic ability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protective factor in reducing juvenile delinquency.

Key words : insecure attachment,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problem behaviors, empathic ability